



- **경제 이슈** : 2월 광공업생산 1.8% 감소
미국 경제지표 확장세
- **경영 노트** :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‘이기는 조직의 5가지 비결’
- **사회 트렌드** : 백만장자는 영국을 가장 좋아해
5월 사상 최대 관광객 온다
- **저널 브리프** : 성공적인 점심시간 활용 방법 7가지
- **금주의 도서** : 르네상스 소사이어티
- **洗心錄** : 논어(論語)의 재발견

□ 2월 광공업생산 1.8% 감소

-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생산과 소비, 투자 등 대부분의 분야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었음
 - 생산 : 광공업생산은 전기장비(5.8%)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(-7.2%), 반도체 및 부품(-4.9%)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.8% 감소하였고, 서비스업은 도소매업(-1.2%), 숙박·음식점업(-4.7%) 등이 줄어 전월대비 0.4% 감소
 - 소비 : 소매판매는 내구재(0.4%) 및 준내구재(2.4%)는 늘었으나, 비내구재(-7.4%) 소비가 줄어 전월대비 3.2% 감소
 - 투자 :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0.3% 감소.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실적이 저조하여 전월대비 3.6% 감소

- 향후 국내 경기는 수출 증가 및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

□ 미국 경제지표 확장세

- 미국의 고용, 소비, 산업생산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각각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2014년 연초의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음
 - 고용 현황 :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1만1,000건을 기록하여 전주보다 1만건 감소하였고 시장의 예상치인 32만3,000건을 하회.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최저치이고, 4주 이동평균 수치는 31만7,750건으로 2013년 9월 이후 최저치임
 - 소비 현황 : 2월 소매판매는 흑한의 여파로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었지만 지난 2월 0.3%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. 3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2.3p를 기록하여 전월의 78.3p를 상회하였고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 기록
 - 산업 생산 :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55.5p를 기록하여 전월의 57.1p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 견고한 확장세를 지속

- 연초 미국의 경기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, 2월 이후 고용이나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흑한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둔화로 평가되며 2014년 상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이 증폭

□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'이기는 조직의 5가지 비결'¹⁾

- 고수는 하수와는 달리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음
 - 잘 싸우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게 승리를 얻어낸다는 의미
 - 반면 하수가 싸울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음
- 이러한 관점에서 '손자병법(孫子兵法)'은 이기는 군대와 지는 군대의 차이를 설명
 -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"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군대이고,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워 놓고 승리의 방법을 찾는 군대다"라고 표현
 - * 勝兵 先勝求戰, 敗兵 先戰求勝.
- 손자는 선승(先勝)의 조건으로 '도천지장법(道天地將法)'의 5가지 특징을 제시

< 이기는 조직의 5가지 비결 >

내 용	
도(道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(道)는 지도자의 정치력 혹은 리더십을 의미하고, 병사들이 지도자와 같은 의지를 갖게 만들면 전쟁에서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 • 최고경영자의 꿈과 비전을 위아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으면, 어떤 분야에 있는 기업인지 상관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
천(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(天)은 계절에 따른 기후 상황을 의미하고, 현대적으로는 조직이 처한 외부적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•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러시아를 정복하려 갔다가 실패한 이유는 혹독한 추위라는 기상조건 때문
지(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(地)는 먼 곳과 가까운 곳, 험난한 지형과 평탄한 지형, 넓은 지형과 좁은 지형 등 지리적 조건을 의미 • 실리콘밸리는 따뜻한 기상, 바다로의 쉬운 접근, 일류 대학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인재 등 다양한 지형 조건을 기반으로 성공
장(將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(將)은 장군의 능력을 의미하며, 구체적으로 지혜(智), 신뢰(信), 배려(仁), 용기(勇), 엄격함(嚴)을 제시 • 전방의 장군이 능력이 있고 후방의 군주가 간섭하지 않는 조직, 즉 인재를 뽑아 권한을 위임할 줄 아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
법(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(法)은 부대 조직과 편성, 임무의 명확한 배분, 군수의 공급과 관리 등 제도 전반을 의미 •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면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, 각자 맡은 역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

1) '孫자가 꿈은 이기는 조직의 5가지 비결은...'([동아일보, 2014.03.13](#))를 요약 정리. '도천지장법'에 대한 해석은 박재희 지음, "손자병법으로 돌파한다", 문예당, 2003을 참조.

□ 백만장자는 영국을 가장 좋아해²⁾

- 영국의 한 컨설팅기업 조사에 의하면, 2003~2013년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이주한 곳은 영국이었음
 - 백만장자의 기준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고 최소 100만 달러(약 10억 7000만원) 이상 보유한 사람을 뜻함
 - 이 시기 영국으로 순수입된 백만장자 수는 11만 4,100만 명으로,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(4만 5,000명)의 두 배에 달함
 - 백만장자들은 경제적 활동, 삶의 질, 우수한 교육 및 주택 여건, 사회적 안전, 신분 보호 등에서 런던을 선호한다고 밝힘
 - 싱가포르는 안전한 환경과 세금 우대 정책 때문에 선호도가 높았음
 - 미국(4만 2,400명)과 호주(2만 2,200명), 홍콩(1만 9,700명)이 뒤를 이었음

- 같은 기간 중국에선 7만 6,200명의 백만장자가 빠져나갔음
 - 중국은 스모그 등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‘부패와의 전쟁’이 선포되면서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음
 - 이들은 생활 환경이 비슷한 홍콩,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주를 선호
 - 인도에서는 4만 3,400명의 백만장자가 도피. 이어 프랑스(3만 1,700명), 이탈리아(1만 8,600명), 러시아(1만 4,000명) 등의 順

□ 5월 사상 최대 관광객 온다³⁾

-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1만 8,000명 규모의 사상 최대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힘
 - 이번에 방한할 관광객은 암웨이와 모집한 중국 및 대만 지역 한국 방문 희망자로, 대만지역에서 모집한 관광객은 오는 5월 25일부터 부산으로, 중국인 관광객은 5월 51일부터 닷새에 걸쳐 크루즈선을 통해 제주로 입국
 - 이와는 별도로 중국 완메이유한공사가 모집한 6,000명이 오는 5월 17일과 22일 제주, 부산, 여수에 입항하는 단체관광을 유치
 - 이에 따라 오는 5~6월에만, 중국 크리티나가 모객한 5,000명, 중국 삼생에 등록된 1,000명을 포함해 총 3만여 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을 유치

2) ‘백만장자는 영국을 가장 좋아해’(한국경제, 2014.3.29)를 요약 정리함

3) ‘5월 사상최대 관광객 온다’(헤럴드경제, 2014.3.25)를 요약 정리함

□ 성공적인 점심시간 활용방법 7가지⁴⁾

- 미국의 인터넷 매체 ‘비즈니스 인사이드(Business Insider)’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7가지를 소개
- ① 점심시간에 그날의 계획을 점검한다
 - 점심시간에 중요한 모임이나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며, 점심식사 후에 적어도 10분 가량 혼자만의 자유 시간을 갖고 그날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평가하며 일정을 조정
- ② 점심때가 되면 자리를 벗어난다
 - 점심 때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상을 반드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
- ③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
 -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다른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멘토를 만나거나 조직 및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색
- ④ 식사는 여유있게 한다
 - 패스트푸드 등으로 빠르게 식사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당장 오후부터 스트레스 수준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식사하기 위해 노력
- ⑤ 운동을 한다
 -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할 경우 에너지와 성취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등 오후 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
- ⑥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을 재충전한다
 -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만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기분을 새롭게 하는 등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을 재충전
- ⑦ 브레인스토밍을 한다
 - 점심시간을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브레인스토밍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나 개인 생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는 데 이용

4) ‘성공하는 사람의 점심시간, 이렇게 다르다’(코메디닷컴, 2014.03.26)참조.

□ 르네상스 소사이어티⁵⁾

저자 롤프 안센은 덴마크 출신 미래학자로 1988~2001년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 대표였으며, 현재는 기업 비전 수립 및 미래전략 컨설팅 기업인 드림컴퍼니의 최고상상력책임자(CIO, Chief Imagination Officer)로 활동하고 있다. 주요 저서로는 <드림 소사이어티> 등이 있다.

○ 미래 사회의 모습

- 현재의 흐름을 토대로 보면 미래에는 동양과 서양간, 국가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며,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
- 특히 동양에서는 현재 서양 사회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물질적인 꿈을 지향하나 서양의 경우 물질에서 탈물질, 즉 삶의 질이나 행복을 지향하게 됨
- 3D 프린팅, 나노테크놀로지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제3차 산업혁명으로 1인 생산 1인 소비시대가 도래

○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

- 세계 경제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점차 삶의 목표, 삶의 질, 정서적인 만족,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민 등이 주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임
- 탈물질시대로 진행될수록 소득보다는 행복이나 삶의 만족감이 중요하며,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힘을 얼마나 잘 북돋아 주는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
- 호모 이모셔널리스(Homo Emotionalis)의 탈물질시대로 진행될수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되어야 함
-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제품은 부수적인 가치가 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가 주된 가치가 될 것임

○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의 리더

- 서양의 두 번째 르네상스는 비물질적인 가치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행복, 번영, 선한 삶을 통해 비물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임
- 미래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의 CEO는 직원과 고객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하며, 수평적 문화에 맞는 권한 분산,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됨

5) 롤프 안센(Rolf Jensen), 미카 알토넨(Mika Aaltonen) 지음, “르네상스 소사이어티”, 365, 2014.2.

□ 논어(論語)의 재발견

최근 논어(論語)를 비롯해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. 특히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던 공자(孔子)의 말씀을 기업경영, 자기계발 등 현대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결부시켜 쉽게 풀어 쓴 실용서적들이 유행하고 있다. 혹자는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논어를 실용 서적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, 논어가 철학이나 역사책의 범주에 한정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. 논어에는 분명 현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경영이나 자기관리와 관련된 풍부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

“學而時習之, 不亦說乎? 有朋自遠方來, 不亦樂乎? 人不知而不慍, 不亦君子乎?”

(배우고 때에 맞추어 실행하니 기쁘지 아니한가? 먼 곳으로부터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?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?)

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학이편(學而篇) 1장(章)의 내용이다. 논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면, 논어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실용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.

공자는 마치 21세기가 지식사회가 될 것을 예상한 것처럼 배움의 즐거움에,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능력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인맥,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 평생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며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게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, 자신의 성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면, 현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성공한 인생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.

수년 전부터 시작된 자기계발 서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.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다.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 서적들은 읽을 때는 재미있지만, 막상 다 읽고 나서는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좋은 자기계발 서적을 찾느라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의 성공비법을 배우기 위해 논어-혹은 논어 관련 자기계발 서적-를 한 권 구입해 보자. 어느 순간 박제화된 이미지에 가려진 자기계발 컨설턴트로서의 공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

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.

- 필립 제임스 베일리(1816-1902): 시인